

‘ABC · 뉴트로’ 양계농장 깔짚 재활용 해법 제시

육 계농가들
이 깔짚
가격 상승으로 어
려움을 겪는 가운
데, 깔짚 재활용
우수사례가 주목
을 받고 있다. 강
원도 춘천시에 소

재한 육계농장은 올해 1월 깔짚 재활용을 위
해 우린네이처(대표 고영규)에서 공급하는
ABC와 뉴트로를 사용하였다. 해당 농장 대
표는 “깔짚 재활용 경험이 없어서 발효가 잘
될지 걱정되었는데, 닭 출하 후 사용한 깔짚
위에 ABC와 뉴트로를 골고루 뿌리고 온풍
기를 틀고 계사를 밀폐하였다. 1주 가량 되
니 발효가 활발해지고 습한 구역에는 균(방
선균)이 만발했다. 그
만큼 이들 제품이 발
효를 촉진 시킨 것으
로 판단된다. 2주 후
에는 질퍽했던 깔짚이
마르면서 거북이 등껍
질처럼 갈라진 현상을
볼 수 있고, 온도만 높



▲ ABC



▲ 뉴트로

게 유지 하면
7~10일 정도
면 발효가 된
다”고 말했다.
또 “재활용 후
암모니아 가스
가 많이 줄었으
며, 남아있는

약간의 가스도 뉴트로를 뿌리니 바로 해결
됐다”고 전했다. 발효나 부숙 과정에서 생기는
곰팡이로 방선균이 생겼다는 것은 분뇨
유기물이 유용한 성분으로 전환됐다는 뜻으
로 퇴비화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다. 우린네
이처에서 권장하는 효과적인 깔짚 재활용법
에 따르면, 계분(똥딱지)을 걷어내고, 100평
당 ABC 1ℓ와 뉴트로 2kg을 물(300~1000



▲ 제품 사용 전



▲ 제품 사용 1주일 후



▲ 제품 사용 2주일 후

167 월간양계 2021. 3월호

ℓ)에 섞어 깔짚이 충분히 젖도록 뿌리고, 가
능하면 뒤집어주는 게 좋다. 발효 기간 동안
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사를 밀폐하고 온
도가 낮으면 열풍기를 가동한다. 발효 기간
에는 왕성한 발효로 인해 많은 양의 가스가
발생하나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를 해서는

안 된다. 환기는 입추 3일 전에 하면 된다.
재활용 후 가스가 나는 경우 뉴트로 1kg을
물 500ℓ에 섞어 고압 분무를 하거나 에어
리퍼어를 안개 분무(300~500평당 1ℓ)하면
된다. 깔짚을 재활용하면 퇴비 부숙도에도
크게 도움이 된다.